

조선후기 佛畵의 腹藏 연구

이용윤*

I. 머리말
II. 불화 장황과 腹藏 安立
III. 복장 안립과 眞言
IV. 불화 복장의 喉鈴筒
V. 후령통의 安立物目과 절차
VI. 맺음말

I. 머리말

사찰에서는 부처의 형상을 표현한 예경대상을 법당에 봉안하기 위해 腹藏儀式을 거행한다. 복장의식의 대부분은 喉鈴筒에 안치되는 각종 物目에 신성함을 부여하는 법식을 중심으로 거행되며 황초폭자에 감싼 후령통이 완성되면 불상과 불화에 납입하고 의식을 마무리한다.¹ 사찰에서 비밀리에 전해지던 복장은 불상에서 다량의 복장 물목이 출토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² 복장은 출토 물목에 따라 미술사에서는 원문을 중심으로 제작시기와 제작자 및 양식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서지학은 경전과 다라니를 통한 간행 및 유통, 그리고 복식사는 의복의 종류와 직물

* 불교문화재연구소 불교미술연구실장

1 복장의식에 관한 보고서는 불교문화재연구소, 『불복장의식 현황조사보고서』(대한불교조계종, 2012);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 2014) 참고.

짜임 및 문양 등이 중심 주제로 다루어졌다. 최근에는 복장의식집인 『造像經』이 해제되고 복장의식이 공개되면서 사례별, 혹은 주제별 분석에서 확장하여 복장이 지닌 종교적 의미와 기능을 고찰하고 동아시아에서 한국 복장의 특징과 변천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³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불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불상과 마찬가지로 복장이 납입되는 불화 복장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⁴

불화 복장 연구가 이처럼 미진한 이유는 복장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는 이유도 있겠으나 시기적으로 고려부터 조선 후기까지 연속적으로 출토되는 불상 복장에 비해 불화 복장은 조선 후기에 집중되어 있고 복장 물목도 후령통과 願文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문을 통해 제작시기와 연대가 밝혀지는 불상과 다르게 불화는 화기만으로도 파악이 가능하기에 불화 복장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후령통이 중심이 되는 불화 복장이야말로 한국 복장의 특징과 성격을 규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불화 복장은 “불상에 원통형 후령통을 사용하고 불화에는 방통형 후령통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이 내용도 복장의식을 정리한 유점사판 『조상경』(1824)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이전에 간행된 용천사판(1575), 능가사판(1679), 화장사판(1720), 김룡사판(1746) 『조상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다. 유점사판에서는 후령통 형태만이 아니라 복장에

2 불상 복장은 1960년부터 보고되어 현재 많은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 민영규, 「長谷寺 高麗鐵佛 腹藏遺物」, 『人文科學』14-15(1966), pp. 237-247; 천혜봉, 「鳳林寺 木造如來坐像의 腹藏典籍」, 『서지학』7(1972), pp. 5-27; 강인구, 「瑞山 文殊寺 金銅如來坐像腹藏遺物」, 『미술자료』18(1975), pp.1-18; 허홍식, 「1322년 새로운 복장물」, 『문화재』19(1988), pp. 46-58 참고; 조선전기 불상 복장은 문명대, 「洪城高山寺佛像의 腹藏調査」, 『考古美術』9-1(1968), pp. 366-367; 鄭永鎬, 「莊隆寺菩薩坐像과 그 腹藏發願文」, 『미술사학연구』128(1975), pp. 2-4; 홍은식, 「朝鮮初期 上院寺文殊童子像에 대하여」, 『美術史學研究』(구 고고미술)164, (1984), pp.9-22; 안병찬, 「通度寺 소장 金銀製阿彌陀三尊佛像의 腹藏物 調査」, 『불교미술사학』3 (2005), pp. 256-265 참고; 조선 후기 불상 복장은 홍사준, 「鴻山 無量寺 극락전 발견 주존복장유물」, 『美術資料』19, (1976), pp.29-31; 최몽룡, 「莞島觀音寺 木造如來像과 腹藏遺物」, 『美術資料』20(1977), pp.97-109; 張忠植, 「景泰七年 佛像腹藏品에 對하여」, 『미술사학연구』138·139(1978), pp. 42-50 등이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 주로 조선 후기 불상 복장에 관한 논문과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3 泰旻, 『造像經—佛腹藏의 節次와 그 속에 담긴 思想』(운주사, 2006); 『佛腹藏에 새겨진 의미』(양사재, 2008); 복장 기능과 연원에 관한 연구로는 이선용, 「佛腹藏物 구성형식에 관한 연구」, 『美術史學研究』261(2009), pp. 77-104; 이승혜, 「불상의 성물(聖物) 봉안; 쟁점과 과제」, 『정신문화연구』38(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pp. 31-62; 「고려시대 불복장의 형성과 의미」, 『美術史學研究』285(2005), pp. 71-100; 정은우, 「고려시대 불복장의 특징과 형성배경」, 『美術史學研究』286(2015), pp. 31-58.

4 불화 복장에 관한 논문은 이영숙, 「仙巖寺 掛佛과 腹藏囊에 관한 考察」, 『문화사학』21(한국문화사학회, 2004), pp. 875-901.; 이종수, 「靑銅腹藏囊의 新例—發願文 내용을 중심으로」, 『미술자료』69(국립중앙박물관, 2003), pp. 133-142; 이선용, 「불화에 기록된 범자와 진언에 관한 고찰」, 『美術史學研究』278(한국미술사학회, 2013), pp. 125-162.

납입되는 물목의 명칭 및 후령통 안과 밖에 놓이는 물목에도 차이를 보인다. 즉 이전 『조상경』에서 八葉筒, 八葉喉鈴筒으로 혼용되던 筒의 명칭은 유점사판에서 喉領筒으로 정립되었고, 통에 납입되는 물목도 舍利七粒에서 舍利七粒·舍利合·喉領筒으로 세분화되었고 이에 대한 설명이 더해졌다. 이밖에 후령통 외부 물목으로 列金剛地方之圖, 八葉大紅蓮之圖, 准提九字天圓之圖 등이 생겨났다.⁵ 이처럼 불상과 불화에 따라 후령통 형태가 구분되고 후령통 물목과 절차가 복잡해졌다는 것은 유점사판이 간행되기 이전에는 불상과 불화가 구별없이 같은 형태의 후령통과 물목을 사용하였음을 시사한다.

이 글에서는 후령통 형태가 규정되고 물목이 세분화되면서 복잡해지는 현상에 영향을 끼쳤던 요인으로 후령통 안립 공간에 주목하고자 한다. 불화에서 후령통은 화면 상단에 걸리는 복장 낭이나 화면 뒷면에 놓인다. 불화에서 나타나는 후령통의 안립 공간 차이는 불화를 簇子 혹은 額子로 粧緘하는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 장황 형식에 따른 복장의 납입 공간 변화는 불화의 후령통 형태만이 아니라 진언의 기입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후령통에 들어가는 물목도 변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불화 복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 양상을 해석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불화에 근거해 불화 장황과 복장 안립 공간의 연동성, 안립 공간에 따른 후령통의 형태 및 진언과 물목 변화를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조선시대에 간행된 복장 의식집과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며 반영되고 의식으로 정례화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⁵ 『造像經』(용천사판 1575, 능가사판 1679), 「所入諸色」, 東方鏡·青色瑪瑙寶瓶 大麥 生金 青木香 人蔘 大黃·白絹金書一切如來全身舍利寶齒真言若干 生紙諸書梵書若干 腹藏滿盛爲限閉之 又兩面圓鏡一銀合內入 無孔珠水晶一爲心珠也 五色繩合一條長十尺或五十尺結環喉領也 八葉筒 黃絹幅子方一尺五寸 願文一度青絹紅書 證明諸師梓匠給侍檀越緣化見聞隨喜助緣者一一備書入之可也·「腹藏入物少錄」, “五寶 東 生金·中 琥珀 乳香 附子 牛黃 黃芥 五穀 大蔘 菜豆 麻子 八葉蓋舍利七粒 用圓五分或寸一分或二三分白琉璃筒盛之 五輪種字各寫一字 用染五色絲各方寸於五彩各書梵字以朱砂寫一字 真心種字 用熟黃絹方 二寸泥金梵書 又梵書一切如來全身舍利寶齒真言 用熟白絹金書或印出亦得 又兩面圓鏡一銀合內入 量無孔水晶一表心珠也 五色帛一尺五寸五 色繩合一條長十尺或五十尺可呵喉領八葉筒 裏黃絹幅子一方一尺五寸可 願文一度青絹紅書 筒內藏次第·”

『造像經』(유점사판), 「腹藏所入諸色」, 看次諸色目錄 一一預備可矣, 東方鏡·青色瑪瑙寶瓶 大麥 生金 人蔘 青木香 大黃·一切如來全身舍利寶齒真言 白絹金書若干 음바라바사가리어나나맘라함(범자, 한자, 언해 병기) 生紙諸書梵書若干 佛腹滿盛爲限 兩面圓鏡 二介一介筒內五瓶底安之一介五瓶口覆之 無孔水晶珠一爲心珠也 五色絲 長十尺或五隨方色係五瓶口畢竟合爲一絡上出喉領筒八葉蓋口 又穿出八葉 大紅蓮中央又穿天圓中央畢竟又上出黃絹幅子外橫豎環結後以准提呪裏以法印呪橫緘證明某 本文或五十尺云者 結界道場用之黃絹幅子方一尺五寸許也 願文一度 青絹紅書 證明諸師梓匠給侍檀越緣化見聞隨喜助緣者一一備書爲可也 舍利七粒 以水晶 等寶代用之 舍利盒 圓二三分造之 亦具八葉蓋 喉鈴筒 其八葉蓋上中央通喉六筒體形可容五瓶許造之 塑像用圓筒畫幀用方筒筒外四而書四方 呪表四方筒蓋隨方位書真心種字勿差謬方位也 四方呪 筒外書之 아마라하(범자, 한자, 언해 병기) 八葉大紅蓮呪·”

II. 불화 장황과 腹藏 安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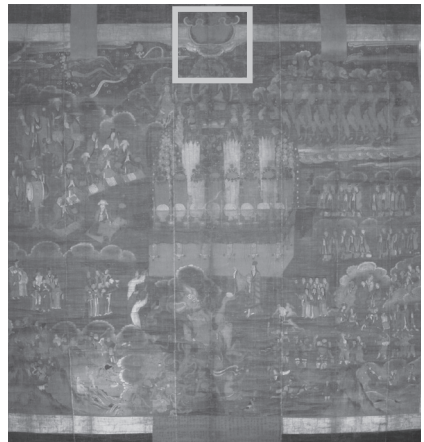
불화에 언제부터 복장을 안립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불상과 마찬가지로 고려시대부터 의식을 행하고 특정 공간에 납입하였을 것이다. 고려불화에 복장의식이 거행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로 일본 쇼호지(正法寺) 소장 〈아미타내영도〉(고려 후기)가 있다. 이 불화는 보수 과정 중 화면 뒷면에서 다라니가 발견되었다. 여래의 가슴과 배 사이에 부착되어 있던 이 다라니는 고려시대 불상에서 빈번하게 출토되는 梵字圓圖陀羅尼이다.⁶ 비록 후령통은 아니지만 법신의 위신력을 갖춘 다라니가 여래의 가슴과 배 사이에 위치했다는 것은 제작될 당시부터 불화에 신성함을 부여하기 위한 종교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불화 복장하면 불화 상단 중앙에 걸려 있는 복장낭과 방통형 복장물을 떠올린다(도 1). 그동안 복장낭과 방통형 복장물은 구별없이 이해되었으나 엄밀히 말해 서로 안치되는 공간과 사용된 시기가 다르다. 복장낭은 불화 앞면 상단에 걸리며 조선 후기 전반에 걸쳐 사용되었으며 방통형 후령통은 18세기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불화의 일반적인 형태로 정착하였다.

복장낭이 고려시대부터 존재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그림과 기록을 통해 적어도 조선전기 불화



도 1 <남장사 괘불도 복장낭>, 1783년, 비단·종이, 78×63cm(좌) <남장사 괘불도 복장낭>, 1783년, 비단·종이, 78×63cm(좌), <통도사 현왕도 후령통>, 1864년, 비단, 종이, 96×8.9×1.8cm



도 2 일본 <藥仙寺 감로도>, 1589년, 삼베에 채색, 169.3×158.2cm (朝鮮時代 甘露幀 甘露下, 통도사성보박물관, 2005)

⁶ 박은경, 「고려불화의 변주-本地, 畫幅 그리고 奉安에 대한 試論-」, 『미술사논단』 34(2012), pp. 49-51; 이선용, 앞의 논문, p. 128.

⁷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1301-1302), <문수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1346), <장곡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1346)의 복장물 중에는 五香을 담은 香囊 혹은 錦囊이 출토된다. 이처럼 복장물목으로 납입되는 주머니는 불화에 후령통을 안립하기 위해 주머니를 사용하는 것과 연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 3 <선암사 제석천도>와 복장낭, 1753년, 비단·종이 화면 150×137cm(필자 사진)

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 일본 고쿠분지(國分寺) 소장 <지장시왕도>(1586)와 약센지(藥師寺) 소장 <감로도>(1589)에는 화면 상단 중앙에 복장낭이 그려져 있으며 그 형태와 위치는 조선후기 불화에 걸려 있는 실제 복장낭과 다르지 않다(도 2, 도 3).⁸ 그림으로 그려진 복장낭 외에도 버크컬렉션 소장 <석가불도>(156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약사불도>(1565)의 화기에는 복장의식을 연상시키는 ‘依法黠眼’이라는 글귀가 적혀있다.⁹ 점안은 불상과 불화를 예경대상으로 법당에 봉안할 때 복장의식에 이어 행하는 불교의식으로 『조상경』에도 복장의식 다음에 점안의식이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조선전기의 불화 복장은 실물이 남아 있지 않으나 화면에 그려진

복장낭과 화기를 통해 복장의식을 거행하고 복장을 안립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불화 복장의 실체는 조선후기에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조선후기 불화 복장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많은 수의 불화 복장이 알려졌으며 이 중 수리 및 해체로 인해 복장의 안립 공간과 복장 물목이 공개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표 1).¹⁰

표 1 18세기 전반~19세기 전반 불화 복장

	불화	연대	불화 상황	후령통 봉안방식	후령통 형태	복장 및 후령통 안립물목
1	죽림사 영산회괘불도	1622년	족자	복장낭		미상
2	죽림사 영산회상도	17세기말	족자	미상		사리, 불두, 원문
3	흥국사 영산회상도	1689년	족자	복장낭		미상

⁸ 화면 상단에 그려진 복장낭 외에도 탄조지(誕生寺) 소장 <지장시왕도>(1582) 화기의 明鏡과 錦囊은 복장낭과 복장낭에 함께 걸리는 동경을 연상시킨다. 박은경, 위의 논문, p. 52; 『조선전기 불화 연구』(시공사, 2008), pp. 458-466.

⁹ “依法黠眼”은 일본 호주인(寶壽院) 소장 <약사불도>(1565), 일본 류조인(龍乘院) 소장 <약사불도>의 화기에도 사용되었다. 『韓國의 佛畫 畫記集』(성보문화재연구원, 2011), pp. 283-285.

¹⁰ 불화 복장에 관한 자료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한 전국 사찰문화재 일제 조사 보고서인 『한국의 사찰문화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추후 불화 복장 조사가 진행되면 그 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4	봉정사 아미타불회도	1713년	족자	복장낭		미상
5	기림사 삼세불도	1719	족자	복장낭		미상
6	지장사 패불도	1722년	족자	복장낭	方筒 (종이)	黃絹幅子(墨書, 종이)喉鈴筒(南·摩, 東·阿)列金剛 地方之圖, 八葉大紅蓮之圖, 一切如來全身舍利寶 篋呪·准提呪, 文殊私利能消定業陀羅尼·次入悉 地·三出悉地, 北方尾佉曩恒迦大明王阿彌陀化身 眞言
7	홍국사 16나한도	1724년	족자	복장낭		미상
8	송광사 오십삼불도	1725년	족자	복장낭		복장낭 내부에 목판본 경전 낱장본이 채워져 있음
9	구룡사 삼장보살도	1727년	족자*	복장낭	圓筒 (종이)	黃絹幅子(南, 직물), 喉鈴筒(南), 入悉地呪 외 진언 문치
10	봉림사 영산회상도	1727년	족자	복장낭	圓筒 (나무)	黃絹幅子(四方呪, 종이), 喉鈴筒, 五色絲, 후령통 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는 낱장 종이(大黃, 黃 芥, 大黃 墨書), 眞言(朱書)
11	동화사 지장시왕도	1728년	족자	복장낭		미상
12	해인사 영산회상도	1729년	액자	뒷면	원통형 주머니 (비단)	오보병과 오색사를 쓴 후령통(謹封목서), 목판본 隨求陀羅尼(1706년본), 목판본 다라니(1706년)
13	갑사 삼세불도	1730년	족자	복장낭		圓鏡, 목판본 首楞嚴經, 목판본 妙法蓮華經, 목 판본 水陸無遮平等齋儀纂要, 필사본 一切如來全 身舍利寶篋陀羅尼
14	해인사 지장보살도	1739년	액자	복장낭		미상
15	홍국사 삼장보살도	1742년	족자	복장낭	원통 (종이)	黃絹幅子(東, 四方呪, 직물), 후령통, 오색사, 목판 본 경전(묘법연화경), 목판본 一切如來全身舍利寶 篋陀羅尼
16	선암사 영산회패불도	1753년	족자	복장낭	원통 (금속)	黃絹幅子(四方呪, 직물), 후령통(喉鈴銀盒八葉筒 蓋之圖), 五寶瓶(오보병납입 물목인 진언, 금강저 등이 혼재되어 있음), 목판본 一切如來全身舍利 寶篋陀羅尼, 목판본 眞心種子圖·出悉之圖
17	선암사 대법당 제석천도	1753년	족자	복장낭	원통 (종이)	黃絹幅子(南, 직물), 文殊私利能消定業陀羅尼, 목 판본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陀羅尼(후령통 밑), 喉鈴筒(四方呪, 五方鏡), 喉鈴筒(眞言), 兩面圓 鏡, 五寶瓶(黃, 靑, 朱, 白, 黑, 필사본 一切如來全 身舍利寶篋陀羅尼), 五色絲, 眞心種子(오보병 밑) 등

18	수타사 영산회상도		족자	복장낭		사리
19	축서사 영산회괘불도	1768년	족자	복장낭	(금속 추정)	八葉大紅蓮之圖, 五方鏡 추정
20	남장사 영산회괘불도	1767년	족자	복장낭		원경
21	남장사 영산회괘불도	1788년	족자			
22	문수사 지장시왕도	1774년	액자	뒷면	원통 (종이)	黃綃幅子(四方呪, 謹封菊密: 종이), 列金剛地方 之圖, 원경, 喉鈴筒(오보병 안립, 사리 7과, 후령 덮개에 각종 진언), 五色絲, 准提九字天圓之圖, 원문
23	향천사 아미타불회도		족자	복장낭		
24	통도사현왕도	1775년	액자	뒷면	원통 (종이)	黃綃幅子(證明墨書, 종이), 准提九字天圓之圖 안 에 喉鈴筒 확인
25	통도사 신중도	1792년	액자	뒷면	방통 (종이)	黃綃幅子(謹封, 法印呪, 准提呪, 종이), 안에 喉鈴 筒 납입 확인
2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성불사 현왕도	1798년	족자	상축		곡물, 씨앗, 금속과 유리편, 색실, 색지, 주서로 기 입된 다라니 출토
27	범어사 비로자나불도	18말 -19초	미상	미상		黃綃幅子(謹封, 法印呪, 종이), 列金剛地方之圖
28	강천사 제석천도	1800년	액자	뒷면		喉鈴筒, 謹封紙(證師說對), 필사본 및 목판본 一 切如來全身舍利寶篋陀羅尼 및 각종 진언
29	직지사 괘불도	1801년	족자	복장낭	원통 (종이)	喉鈴筒, 謹封紙, 필사본 다라니, 목판본 一切如來 全身舍利寶篋陀羅尼
30	혜국사 불화***	1804년	액자	뒷면	방형 (종이 추정)	黃綃幅子(종이), 列金剛地方之圖, 兩面圓鏡, 願 文, 金剛杵(종이), 准提九字天圓之圖
31	옥천사 영산회괘불도	1808년	족자	복장낭		
32	관음사 현왕도	1811년	액자	뒷면	방형 (종이)	黃綃幅子(證明문서, 眞言 주서, 종이), 准提九字 天圓之圖, 列金剛地方之圖, 八葉大紅蓮之圖, 喉 鈴筒, 五寶瓶, 五色絲, 兩面圓鏡, 一切如來全身舍 利寶篋陀羅尼

33	용문사 영산회상도	1812년	액자	뒷면	방형 (종이)	准提九字天圓之圖, 列金剛地方之圖, 八葉大紅蓮之圖, 五色絲, 喉鈴筒(오보병 납입)
34	용문사 지장시왕도	1812년	액자	뒷면	방형 (종이)	准提九字天圓之圖, 列金剛地方之圖, 八葉大紅蓮之圖, 五色絲, 喉鈴筒, 오보병
35	통도사 지장시왕도	1812년	액자	뒷면	방형 (종이)	黃綉幅子(證明比丘信瓊謹封法印呪, 准提呪), 황초폭자 안에 후령통, 양면원경 확인
36	파계사 신증도	1824년	액자	뒷면	방형 (종이)	黃綉幅子(臣大燁謹封, 진언 묵서), 准提九字天圓之圖, 列金剛地方之圖, 五色絲에 감싼 喉鈴筒(안에 팔엽대홍련지도로 보임), 願文
37	보광사 현왕도	1836년	액자	뒷면	방형 (종이)	黃綉幅子(친), 准提呪, 法印呪, 寶篋呪, 願文, 喉鈴筒(오색사), 八葉大紅蓮之圖, 准提九字天圓之圖, 列金剛地方之圖
38	현등사 관음보살도	1850년	액자	뒷면	방형 (종이)	願文, 喉鈴筒 및 八葉大紅蓮之圖, 准提九字天圓之圖, 列金剛地方之圖, 黃綉幅子, 謹封紙(觀音證明 臣 慧昭·謹封) 准提呪, 法印呪
39	현등사 칠성도	1861년	액자	뒷면	방형 (종이)	喉鈴筒(오보병 물목, 오색사) 八葉大紅蓮之圖, 准提九字天圓之圖, 黃綉幅子, 謹封紙(證明比·謹封), 准提呪, 法印呪
40	묘각사 아미타불회도	1863년	액자	뒷면	방형 (종이)	黃綉幅子(證明 璘典 謹封, 준제주, 법인주 흔적 있음, 종이), 필사본 다리니, 列金剛地方之圖, 八葉大紅蓮之圖, 准提九字天圓之圖, 喉鈴筒(오방경, 사방주), 五寶瓶
41	봉은사 비로자나불도	1886년	액자	복장(장식) 뒷면	방형 (종이)	黃綉幅子, 謹封紙(證明·) 准提呪, 法印呪, 寶篋眞言, 喉鈴筒(오보병, 오색사, 열금강지방지도, 팔엽대홍련지도, 준제구자천원지도), 五色絲
42	망월사 괘불도	1887년	족자	복장낭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조성한 불화 중에도 복장낭이 걸려있는 예가 적지 않다. 이 경우 괘불도처럼 대형불화인 경우 후령통이 안치된 사례도 있으나 후령통 없이 다리니를 납입하고 시주자 이름을 복장낭에 적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같은 복장사례는 본 목록에서 생략하였다.

* <구룡사 감로도>는 2001년 조사 당시 족자로 장황되었으나 최근 수리 후 액자로 변형되었다.

*** 이 복장은 1804년에 조성된 <혜국사 영산회상도>, <혜국사 지장시왕도>, <혜국사 신증도> 중 어느 불화에서 출토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조선후기에는 조선전기와 마찬가지로 불화 상단에 복장낭을 안치하는 방식이 지속되었지만 후대로 갈수록 후령통을 뒷면에 안치하는 방식이 선호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 복장을 주머

니에 넣어 걸거나 화면 뒷면에 납입하는 방식은 비교적 알려진 사실이지만 두 안립 방식의 차이가 어떤 이유로 생겨나고 안립 공간의 변화가 복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논의된 바가 없다.¹¹

불화에 복장을 안립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제반 요건은 喉鈴筒이 자리하는 공간이다. 이 안립 공간은 불화의 외형을 구성하는 장황 형식에 따라 달라진다. 불화는 그림이 완성되면 화면에 아름다움을 더하면서 전각이나 야외에 안전하게 걸릴 수 있도록 장황을 한다.¹² 불화 장황 형식은 화면에 상축과 하축을 댄 족자와 사방을 나무틀로 만들어 화면을 지지하는 액자로 나눌 수 있다. 복장을 납입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입체물로 조각되는 불상은 내부에 후령통을 위시한 많은 복장물을 충전할만한 넓은 공간이 형성되는 반면 평면에 그려지는 불화는 복장을 안립할 만한 적합한 공간이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화에서는 후령통을 주머니에 넣어 화면 상단에 거는 방식이 생겨났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조사된 조선 후기 불화의 장황 현황을 살펴보면 족자로 장황한 불화는 17세기와 18세기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액자로 장황된 불화는 18세기 후반에 등장하여 19세기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불화의 장황을 후령통 안립 공간과 연결하면 족자형 불화에서는 복장낭이 사용되고 액자형 불화에서는 뒷면에 납입하는 방식이 선호되었다(표 1 참고).

족자로 장황된 불화에 복장낭이 현과된 이른 예로 <죽림사 영산회괘불도>(1622)와 <흥국사 영산회상도>(1698) 복장낭이 알려져 있으나 현재 죽림사 복장낭은 전하지 않고 흥국사 복장낭은 조성시기가 불분명하여 17세기 불화 복장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¹³ 현재 족자형 불화 가운데 복장낭이 남아 있는 예는 <봉정사 아미타불회도>(1713), <흥국사 16나한도>(1723), <법화사 영산

11 불화 복장을 화면 앞면 복장낭과 뒷면에 납입한다는 인식은 이선용, 위의 논문, pp. 127-128; 정명희, 「불안 공간과 의례의 관점에서 본 조선시대 현왕도 연구—국립중앙박물관 소장 <成佛寺 現王圖>를 중심으로」, 『미술자료』 78(2009), p. 107 등에서 확인된다. 특히하게 <성불사 현왕도>에서는 상축에서 복장이 출토되었고, 이에 의거해 고려 불화 역시 상축에 복장물을 납입했을 가능성을 제시되기도 한다(박은경, 위의 논문, p. 54).

12 서화를 보호하고 장식하는 방식에 대해 표구(表具), 회장(繪粧, 回粧), 장황(粧潢, 粧纒, 裝潢, 裝纒)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표구는 20세기 초 일본에서 들어온 용어이며 회장은 장황과 함께 조선 후기에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장황은 한자의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이 글에서는 불화의 뒷면에 종이를 덧대는 배접과 그 주변을 꾸미는 방식을 장황(粧潢)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장황에 관한 글로는 周嘉青 著·안영길 역, 『裝潢志』(낙원표구사, 1994); 이진희, 「조선시대 장황 용어와 관련 기록」, 『장서각』 23(2010), pp. 117-149.

13 <죽림사 영산회괘불도>의 복장낭 존재에 대해서는 『전통사찰총서 7-광주·전남의 전통사찰Ⅱ』(사찰문화연구원, 1996), p. 245 참고; <흥국사 영산회상도>(1698) 화기에는 腹藏施主가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화면 상단에 걸려 있는 복장낭이 좌우 絡纒의 재질과 차이가 있어 1698년에 조성된 복장낭으로 보기 어렵다.

회상도>(1724), <송광사 53불도>(1725), <구룡사 감로도>(1727), <갑사 삼세불회도>(1730), <천은사 삼장보살도>(1741), <선암사 제석천도>(1753) 등으로 모두 18세기 전반에 조성된 불화이다. 물론 18세기 이후 족자형 불화와 복장낭이 사용되었으나 그 대상은 <홍천사 영산회상도>(1867)와 같이 법당에 걸리는 일부 후불도나 <선암사 괘불도>(1753), <남당사 영산회괘불도>(1788), <직지사 괘불도>(1800), <옥천사 영산회괘불도>(1808), <망월사 괘불도>(1887) 등 평소 괘불함에 보관하다 의식 때 현괘되는 괘불도처럼 대형 불화에서만 사용되었다.¹⁴

복장낭은 불화 규모에 따라 주머니의 크기도 달라지고 납입되는 복장 물품도 달라진다(도 3). 불상만큼은 아니지만 대형 불화에 걸리는 복장낭은 크기가 상당하며 종이와 천으로 제작되기에 복장의 안립 공간이 비교적 가변적이다. 이런 이유로 괘불도와 후불도의 대형 복장낭에서는 후령통만이 아니라 경전과 다라니가 납입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갑사 삼세불도>(1730)는 440×280cm의 화면에 맞게 29×30cm정도의 크기에 복장낭이 제작되었으며 복장낭에는 후령통과 함께 願文을 비롯해 여러 장의 『首楞嚴經』, 『妙法蓮華經』, 『水陸無遮平等齋儀纂要』 및 필사본 다라니가 출토되었다.¹⁵ 복장에 다라니, 경전, 복식 및 직물을 납입하는 것은 황초폭자에 감싼 후령통을 끈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 내부를 가득 채우기 위한 용도이다.¹⁶ 이런 이유로 크기가 작은 복장낭에는 후령통을 감싸는 生紙 혹은 다라니 1-2장이 들어 있거나 후령통만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령통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던 다라니와 경전은 장항 형식이 족자에서 액자로 바뀌면서 사라지고 후령통만을 안립하는 방식으로 변하였다.

전통 장항인 簇子和 屏風에서 보면 불화의 액자 장항은 이색적이지만, 액자의 제작 방식이

¹⁴ 법당의 후불도는 단집에 가려 화면 상단에 복장낭이 걸려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홍천사 아미타불회도>(1867)도 단집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화면 상단에 시주자명이 적힌 주머니가 좌우에 2개가 걸려 있다. 다만 이 주머니는 복장낭이라기 보다 향낭일 가능성이 높다. <망월사 괘불도>는 화면 상단에 3개의 주머니가 걸려 있고 이 중 가운데 주머니에는 후령통이 안치되어 있음을 손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¹⁵ 불화 복장으로 경전이 출토되는 예는 드물다. 『조상경』에서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陀羅尼은 후령통과 관련해 사용되는 필수 진언이기에 불화 복장에서도 필사본 혹은 인출본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나 불상처럼 경전을 납입하는 경우는 <갑사 삼세불도>를 비롯해 <송광사 53불도>(1725), <홍국사 삼장보살도>(1742) 정도이며 그 수량도 卷 혹은 冊이 아닌 낱장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불화 복장에 경전을 납입하는 경우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특징이 의결과 그의 영향을 받은 화승이 제작한 불화에 안치되는 복장낭에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불화 복장의 형태와 물품의 납입 방식이 화승들 사이에 공유되는 경우는 18세기 말 19세기 전반에 활동한 홍안, 신겸, 수연 등의 사불산화파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화승 혹은 화승집단이 證明師 혹은 念佛師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법식에 맞게 복장 물품을 준비하거나 제작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가능성은 추후 보다 많은 자료가 축적되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¹⁶ 용천사판부터 능가사판 『조상경』에서는 寶齒眞言을 범서로 쓴 범서 약간의 生紙와 매 폭 全身舍利寶齒眞言을 범서로 인출한 약간의 부처님의 배가 넉넉히 채워질 정도 채우라고 기록하고 있다(·佛腹盛滿爲限以生紙梵書寶齒眞言若干每幅引出梵書全身舍利寶齒眞言若干數·). 寶齒眞言은 寶篋眞言의 오기이다.

나무틀에 배접하는 병풍과 제작 방식이 유사한 것으로 미루어 병풍에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화를 액자로 장황하는 방식은 18세기 후반부터 선호되기 시작하였다. <성불사 현왕도>(1798)처럼 여전히 족자형 불화가 제작되었지만 <문수사 지장시왕도>(1774), <통도사 현왕도>(1775) 등 액자로 장황된 불화가 점차 증가하였다.¹⁷ 이처럼 18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中小 크기의 불화는 액자로 장황하는 방식이 유행하였고, 19세기에는 대형 불화를 제외하고 전각에 걸리는 불화의 대부분이 액자로 장황되었다(표 1 참고). 액자가 선호되었던 것은 한번 벽체에 봉안하면 예경대상으로 이동하지 않고 오랫동안 모셔두는 불화의 봉안 방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도 4 <법계사 화장찰해도> 뒷면의 후령통 안립 모습, 1911년, 면·종이, 162×241.5cm(법계사·안성맞춤박물관 제공)

액자로 불화가 장황되면서 후령통의 안립 장소도 화면 상단에 걸쳐 있던 복장낭에서 화면 뒷면으로 이동하였다(도 4). 액자는 나무로 짠 사각 틀 위에 화면을 배접하는 방식으로 제작되기에 화면과 나무 사이에는 높이 2~5cm에 가로 세로가 넓은 납작한 공간이 형성된다. 복장을 불화 뒷면에 안립하면서 후령통을 고정하기 위해 넣었던 생지, 다라니, 경전 등은 사라졌다. 즉 불화 뒷면에는 오로지 황초폭자에 싸인 후령통만이 납입되었고 후령통을 감싸던 진언과 다라니는 후령통을 납입하고 마감한 배접지에 필사하거나 인출된 다라니를 붙이는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이처럼 불화가 족자일 때에는 구조적으로 복장을 내부에 안립하기가 쉽지 않았기에 주머니를 제작해 복장 물품을 넣어 화면 상단에 안치하였다. 18세기 후반 불화가 족자에서 액자로 장황되면서 복장 납입도 불화 뒷면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불화 뒷면에 후령통을 납입하는 것은 안립 공간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후령통이 화면 뒷면에 놓이게 되면서 불화 역시 『조상경』의 법

¹⁷ 현재 조사된 바로는 가장 시기가 올라가는 액자형 불화는 <해인사 영산회상도>(1729)이다. 이 불화는 1988년과 2009년 두 차례 보수되었다. 2009년 보수 당시 불화의 장황이 족자일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해체를 하였으나 1988년 보수가 기존의 틀을 보장하는 선에서 수리되었으며 『조선고적도보』(1933)의 사진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이 불화가 액자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화면 뒷면에서 발견된 복장은 주홍색 비단 주머니, 즉 복장낭에 담겨있었다. 복장낭에서는 謹封이란 목서가 적힌후령통, 주서 진언, 인출본 다라니가 납입되어 있으며, 후령통에는 원경과 오색사에 감싼 오보병이 들어있었다(『보물 1273호 해인사 영산회상도 보존처리』(해인사·합천군·고창문화재보존연구소, 2009)). 복장낭과 원통형에 가까운 후령통을 고려하면 불화의 장황이 족자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이 글에서는 보완 자료로 소개하였다.

식에 부합하고 불상과 유사하게 부처의 배 속에 후령통을 간직하는 腹藏의 상징성을 회복하게 되었다.

Ⅲ. 복장 안립과 眞言

『조상경』은 造像의 인연과 공덕을 설명한 大藏經一覽, 복장 물목을 정리한 妙吉祥大教王經, 복장을 납입하는 의식이 내용인 三悉地壇釋, 점안의식 등이 주 내용인 大明觀想儀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⁸ 이 중 대장경일람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는 복장 물목과 의식 행위에 관련된 많은 진언이 수록되어 있다. 진언은 사리에 비견되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 복장의식에서 진언을 염송하고 진언을 적어 물목으로 납입하는 것은 복장에 생명력과 신성성을 부여함을 의미한다.¹⁹

복장 진언은 불상과 불화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불상에서는 진언이 적힌 다라니

로 상 내부를 마감하고 후령통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²⁰ 불화에서는 <선암사 진언 목판>(1753)을 인출하여 <선암사 영산회괘불도>(1753)의 복장낭에 넣기도 하지만 <선암사 제석천도>처럼 뒷면에 부착하기도 한다(도 5, 도 3 참고).²¹ 이 방식은 불상의 복장 진언을 사용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불화에서는 인출본을 충전하거나 붙이는



도 5 <선암사 진언 목판>과 <선암사 제석천도> 뒷면의 부착된 인출본, 진언목판 전곽 23.5×35cm(필자사진 및 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18 남권희, 위의 논문, p. 145 재인용.

19 복장의식에서 범자는 사리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명력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였다는 설명은 주 2의 이선용 논문 참고.

20 불상 내부에 다라니를 붙이는 방식은 고려시대 불상에서 찾아 볼 수 없으며, 조선 후기 불상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21 <선암사 진언 목판>은 『조상경』에 수록된 오륜종자도, 출실지도, 입실지도, 진신종자도를 중앙에 배치하고 우측에 육자대명진언, 그리고 좌측에 8자의 범자가 원안에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준제구자의 9자 중 읍자를 뺀 것을 역순으로 판각한 것이다. 이선용, 위의 논문, p. 152 재인용. <선암사 진언 목판> 외에도 불화 복장용으로 판각된 목판으로 <직지사 진언 목판>(1744)이 있다. 목판의 내용은 『조상경』의 진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목판은 1744년에 <직지사 대웅전 삼세불회>도와 <직지사 명부전 시왕도> 등 30여종이 불화를 조성하고 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판각한 것이다. 판각 말미에는 “甲子三月日 刻工比丘 會式與策鑢于直指寺”라 새겨져 있는데 이 기록은 직지사 삼세불회도 화기의 “眞言 刻手會識 本寺 興策 本寺”와 일치한다. 불상도 상을 제작하면서 진언 목판 판각도 함께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방식보다 화면 전면 혹은 뒷면에 직접 표기하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현재까지 조사된 불화의 복장 진언의 표기 방식은 불화의 화면 외곽이나 상하에 적거나 존상의 신체에 기입하거나 혹은 불화 뒷면에 적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화면 외곽이나 상하에 진언을 기입하는 방식은 <장곡사 괘불도>(1673), <동화사 아미타불 회도>(1699), <남장사 감로도>(1701), <장곡사 영산회괘불도>(1724), <직지사 삼세불회도>(1744), <법주사 괘불도>(1766) 등 17세기부터 18세기에 조성된 대형 불화 가운데 족자로 장황된 불화에서 나타난다. 화면 외곽에 둘러지는 진언은 『조상경』佛菩薩腹藏壇儀式的 五輪種子, 眞心種子, 四方呪, 文殊菩薩法印能業消定業陀羅尼(이하 법인주)를 비롯해 妙吉祥大教王經의 오보병과 오보병을 구성하는 물목을 상징하는 진언, 그리고 삼십지단석의 秘密悉地, 入悉地, 出悉地, 육자대명진언 등이 선별적으로 사용되었다. 화면 외곽에 진언을 기입하는 방식은 <불국사 영산회상도>(1769), <고방사 신증도>(1770), <남장사 영산회괘불도>(1788), <남장사 16나한도>(1790) 등을 마지막으로 18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사라진다.²²

아직 많은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존상의 정수리, 눈, 코, 입을 비롯해 가슴 및 겨드랑이 등에서 點筆方, 准提九字에 해당되는 진언이 발견되었다. 다만 존상에 진언을 표기하는 방식은 주로 의검이 조성한 <청곡사 괘불도>(1724), <운흥사 괘불도>(1730), <다보사 괘불도>(1745), <개암사 괘불도>(1749)에서 확인되었으며 이 진언은 채색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입되었다.²³

화면 뒷면에 진언을 적는 방식은 일본 쇼호지(正法寺) 소장 <아미타내영도>의 사례처럼 고려시대부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진언의 기입방식은 18세기 후반부터 구체화 되었다.²⁴ 불화 뒷면에 진언을 기입하는 것과 맞물려 일어나는 현상이 화면 뒷면에 후령통이 안립된다는 사실이다. 불화 장황이 족자에서 액자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후령통이 화면 뒷면에 안립되면서 화면 외곽이나 존상에 표기되었던 진언도 화면 뒷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남장사 16나한도>(1790)는 족자에서 액자로 장황이 바뀌면서 복장의 진언 기입방식이 변해 가는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 현재 두 폭만이 남아 있는 <남장사 16나한도>는 액자로 장황되어 있

²² 현재 화면에 진언이 기입된 불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17세기에 조성된 <장곡사 괘불도>(1673), <마곡사 괘불도>(1678)와 18세기 조성된 <법주사 괘불도>(1766), <천은사 아미타불회도>(1776)를 제외하고 18세기 경상도 불화에서 집중되어 나타나며, 19세기 이후 사례로는 <통도사 16나한도>(1926)뿐이다.

²³ 불화에서 진언을 존상과 화면 외곽에 표기하는 방식과 진언이 가진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선용, 위의 논문, pp. 133-156 참고; 이밖에 <동화사 아미타불회도>(1699)에서도 보존처리 과정 중 상호와 광배에서 진언이 발견되었다. 『대구 동화사 아미타회상도 보수 공사(대구동구청·대구 동화사·고창문화재보존, 2013)』.

²⁴ 불화 뒷면에 진언을 기입하는 방식은 <운흥사 괘불도>(1730)처럼 18세기 전반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수리과정에서 사라져 그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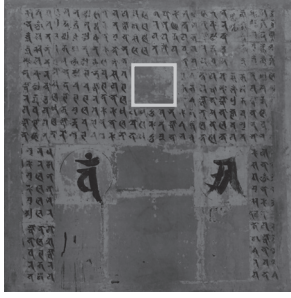


도 6 <남장사 16나한도>와 뒷면, 1790년, 비단·종이, 112×219cm (필자 사진)

다. 이 나한도는 특이하게 홀수 존상이 그려진 나한도는 영남화승을 이끄는 影修가 맡았고 짝수 존상이 그려진 나한도는 경성화승을 이끄는 尙謙이 담당하였다.²⁵ 서로 다른 화승집단이 제작한 만큼 두 폭의 불화는 화풍이 확연히 다르며 또한 진언을 기입하는 방식도 다르다. 즉 영수가 제작한 나한도는 화면 상단과 뒷면에 진언이 기입되어 있는 반면 상겸이 이끄는 경성화공이 제작한 나한도에는 뒷면에만 진언이 기입되어 있다(도 6).²⁶ 영수가 제작한 나한도를 살펴보면, 화면 상단에 秘密悉地の 암(암), 鑠(밤), 嚙(람), 唵(함), 坎(감), 入悉地の 阿(아), 縛(바), 羅(라), 訶(하), 佉(카), 그리고 出悉地の 阿(아), 羅(라), 縛(바), 左(자), 那(나) 등 三悉地壇釋의 진언이 적혀있다. 또한 뒷면에는 크게 원형으로 진언을 두르고 중심에 准提聖梵九字 진언(이하 준제구자)을 적었다. <남장사 16나한도>의 사례로만 본다면 18세기 후반에 액자로 불화가 장황되면서 일정

²⁵ 第七迦理迦尊者·第九成博迦尊者·第十一羅怛羅尊者·第十三因揭陀尊者·第十五阿氏多尊者가 그려진 나한도는 影修와 璋全이 제작을 맡았으며 第八伐闍羅尊者·第十半託迦尊者·第十二那伽尊者·第十四伐羅尊者·第十六注荼尊者가 그려진 나한도는 尙謙, 戒寬, 宥弘, 法性, 宇悅 등이 담당하였다. 남장사에서 경성화승 상겸이 활동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용윤, 『朝鮮後期 嶺南의 佛畫와 僧侶門中 연구』(홍익대학교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p. 140.

²⁶ 진언의 기입방식의 차이가 서로 다른 화승집단과 관련이 있는지는 추후 자료가 축적되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상겸이 제작한 나한도는 뒷면이 훼손되어 많은 부분이 없어졌으나 뒷면 가득 진언이 기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향은 상겸이 제작한 <황령사 아미타불회도>(1786)에서도 볼 수 있다. <황령사 아미타불회도>의 사례로 보면, 상겸이 제작한 나한도에도 준제구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도 7 <황령사아미타불회도>와 뒷면, 1786년, 비단·종이, 185×178cm
(필자 사진)

도 8 <선암사 불설염불법문 목판>, 조선후기,
나무, 전곽, 22×31.8cm(불교문화재연구
소 제공)

기간 전통을 따라 앞면에 진언을 기입하는 방식이 지속되는 한편 뒷면에 진언을 기입하는 방식도 새롭게 정립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진언이 뒷면에 기록되면서 전 시대에 모호했던 진언의 표기 방식에 일정한 법식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즉 불화 뒷면 진언 중 준제구자는 등글게 포치하고 법인주 및 준제주와 같은 封印呪는 준제구자 좌우에 적었으며 四方呪는 네 모서리 혹은 사각형으로 기입하였다.

액자로 장황되고 뒷면에 진언이 기입되어 있는 <황령사아미타불회도>(1790)를 예로 들어 살펴 보면, 화면 전면에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묵서로 적혀 있으며 후령통이 안치된 상단에는 주서로 쓴 준제구자 唵(음), 左(자), 囉(례), 注(주), 囉(례), 准(준), 提(제), 娑婆(스바), 訶(하)가 원형으로 배치되었다. 또한 하단에는 묵서로 쓴 원문범자(圓文梵字) 두자가 좌우로 적혀 있다(도 7). 이 원문범자는 <선암사 佛說念佛灌法 목판>(조선후기)에서 비로자나불을 상징하는 ‘阿’자와 석가불 및 과거불을 상징하는 ‘唵’자와 유사하여 이 범자 역시 복장의식을 행할 때 사용한 정토 관련 범자로 추정된다(도 8).²⁷

후령통이 안치된 부분에 준제구자를 등글게 배치하는 방식은 <수정사 삼세불회도>(1840)에서도 볼 수 있다. 이 불화에서는 화면 네 모서리에 사방주인 “阿(아·東), 摩(마·南), 羅(라·西), 訶(감·北)”를 적어 방위를 표시하였고 준제구자와 사방주 사이에 五輪種字인 坎(감·中), 暗(암·東), 嚩(람·南), 鑿(밤·西), 唵(함·北)을 적었다. 또한 준제구자 좌우에 文殊菩薩法印能消定業陀羅尼

²⁷ 『佛說念佛觀門』, “一心稱念南無阿彌陀佛觀此(범자)阿字卽體是毗盧遮那法身念佛卽念毘盧法身佛十六妙觀甚深法門 以此一字收之無不盡又觀佛有八萬四千相好光明境細心粗初機難入念佛持名又恐散動難得一心今觀字簡易以心緣字又不散入手尤便也 眞言之母 此字具含無量法門釋迦如來及過去如來皆因觀想此字而得成佛如觀九聖字先觀此字分明餘皆現前凡持誦及四錢儀中但觀此字卽得摠持法門安華嚴字母四十二字以阿字爲首疏云 阿字是無生義以武生之理總該萬法故宗門教人提無字公案與此相似要之心觀法門不落分別諦理幽邃顯密圓融…”



도 9 <각화사 동암 신중도>와 뒷면, 1880년, 비단·종이, 113,8×123,1cm (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즉 法印呪인 唵(옴), 娑(바), 計(계), 陀(타), 那(나), 麼(마) 沙縛(스바), 訶(하)를 표기하였다. 이처럼 불화 뒷면에 기입하는 진언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원형의 준제구자는 <각화사 신중도>(1880)처럼 19세기 말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도 9).

준제구자는 『조상경』에서 점필방에 이어 수록되어 있다. 점필방과 준제구자는 모두 점안의 식에 사용되는 진언으로 범자 하나마다 불보살의 각 신체를 상징한다.²⁸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사방주는 복장의식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진언이며 오륜중자는 후령통에 납입하는 진언이다. 법인주는 복장의식에서 후령통을 봉인하는 봉인주이다. 준제구자를 원형으로 포치하는 방식은 유점사판 『조상경』(1824)의 준제구자지도에 처음 등장하며 용천사본(1567)에서 김룡사본(1746)에 이르는 『조상경』에서는 세로로 길게 표기되어 있다. 현재 조사된 자료로만 본다면 준제구자를 원형으로 포치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화에서 발생하여 『조상경』에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후령통의 안립 위치를 상징하는 준제구자는 화면에 그려진 주존에 따라 그 표기 위치가 조금씩 달라진다. <황령사 아미타불회도>(1786)와 <선찰사 삼세불회도>(1823)처럼 주존이 여래인 경우 여래가 표현된 위치에 맞춰 화면 뒷면에 준제구자가 표기된다(도 7 참고). 일반적으로 불화에서 여래는 화면 상단에 그려지는데 준제진언 역시 이에 맞춰 화면 상단, 정확히 말해 여래의 신체 중 가슴과 배 부분에 표기된다. 이러한 위치는 『조상경』에서 언급한 후령통의 안립 위치와 불

²⁸ 又准提九字兼義解, “(범자)訶하 安兩足 訶字一切法無因無果義也解云訶是如來絕證門絕證之時無先後般若非本亦非末由是名爲無因無果 (범자)娑婆스바 安兩脛… (범자)提계 安兩脛…(범자)准준 安臍中…(범자)囉레 安兩肩…(범자)注주 安於心…(범자)囉(레) 安於頸…(범자)左자 安兩眼…(범자)唵옴 安頂上”



도 10 <직지사 신중도>와 뒷면, 18세기, 비단·종이, 1398
×108cm (필자 사진)



도 11 <옥천사 연대암 신중도>와 뒷면, 1849년, 비단·종
이, 121×83.5cm(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상에서 가슴과 배 사이에 납입되는 후령통의 위치와 거의 일치한다.²⁹ <남장사 16나한도>(1790)처럼 주존이 여래가 아닌 경우 불화 뒷면 중앙에 준제구자를 적기도 한다.

이외에도 불화 뒷면의 진언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되었다. <직지사 신중도>(18세기 후반)에서는 후령통이 안립된 곳을 빈 공간으로 처리하고 주변에 둥글게 진언을 적었으며, <봉곡사 신중도>(1785), <마하사 현왕도>(1792)에서는 후령통 안치와 상관없이 전면에 진언과 다라니를 적기도 하였다(도 10). 이외에도 후령통이 안립되지 않는 오여래도, 사보살도, 팔금강도와 같은 소형 의식용 불화나 진영에도 화면 뒷면에 진언을 간략히 적기도 하였다. 이는 비록 후령통을 안치하지 않았지만 진언을 기록함으로써 예경대상의 존격을 갖추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9세기 후반에는 진언 체제가 변화가 나타난다. <옥천사 신중도>(1880)는 후령통이 있는 부분에 준제구자 대신 一切全身舍利寶篋陀羅尼(이하 전신보협다라니)가 표기되었고 그 주변에 비밀실지, 입실지, 출실지와 육자대명왕진언, 그리고 七俱胝佛母心大准提陀羅尼, 즉 准提呪가 봉인주로 사용되었다(도 11). 전신보협다라니는 <쌍계사 승당 아미타불회도>(1888), <선암사 칠성도>(1895), <선암사 16나한도>(1918) 등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불화에서 사용되었다. 특히 <쌍계사 승당 아미타불회도>는 족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장낭을 사용하지 않고 후령통을 화면 뒷면에 놓고 전신보협다라니로 붙여 고정할 정도로 전신보협다라니는 후령통과 연동하는 진언으로 그 성격이 명확해졌다(도 12).

²⁹ 유점사관 『조상경』에서는 후령통과 황초꼭자 안에 물목을 안치한 이후 不動尊眞言을 마치고 복장을 부쳐 배의 배꼽에 끈고 바르게 세우라고 설명하고 있다(「不動尊眞言」, …既加持已闕伽供養後入於佛腹中正當臍輪而正立以眞言法書充滿上下左右…). 비록 불상과 여래도에서 후령통의 안립 위치가 배꼽 부분과 일치하지 않지만 佛腹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안립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도 12 <쌍계사 승당 아미타불회도>와 뒷면, 1888년, 면·종이, 182×246.5cm(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이처럼 19세기 후반에는 후령통이 안립 공간을 상징하는 준제구자를 대신해 전신보협다라니가 선호되었으며 봉인주도 법인주 외에 준제주가 추가되었다. 19세기 후반 복장 진언으로 봉인주인 준제주가 사용되는 것은 유점사관 『조상경』의 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³⁰ 유점사관에서 준제주 2건 중 1건은 둥글게 써서 후령통 안에 넣고 다른 1건은 황초폭자를 가로로 감싸도록 하였다. 불화 뒷면에 진언은 이중 황초폭자를 감쌌던 준제주가 외연으로 확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IV. 불화 복장의 喉鈴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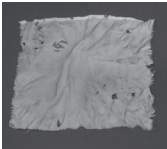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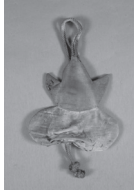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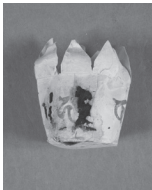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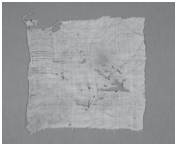


불화 복장 후령통은 유점사관 『조상경』(1824)에서 언급된 방통형 후령통을 일반적인 형태로 알고 있으나 실제 불화에서는 불상 후령통으로 알려진 원통형 후령통이 출토되기도 한다.




원통형 후령통은 <법화사 영산회상도>(1724), <구룡사 삼장보살도>(1727), <선암사 영산회괘불도>(1753), <선암사 제석천도>(1753), <문수사 지장시왕도>(1774), <통도사 현왕도>(1775), <직지사 괘불도>(1800) 등 18세기에 제작된 불화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19세기 이후에 급격히 사라진다(표 2, 표 1참고).

원통형 후령통의 형태와 재질은 <법화사 영산회상도>(1724)의 복장낭에 납입된 것처럼 둥글고 납작한 목제함도 있고 <선암사 영산회괘불도>(1753)처럼 불상 후령통과 같이 금속으로 제작

³⁰ 용천사관 『造像經』(1575), 「諸佛菩薩腹藏壇儀式」, “陀羅尼集第六卷云畢藏後此呪印封能消定業也 文殊菩薩法印能消定業呪 唵(으), 娑(바), 計(계), 陀(타), 那(나), 麼(마) 沙縛(사바), 訶(하)”; 유점사관 『造像經』(1824), 腹藏所入諸色…七俱胝佛母心大准提陀羅尼 唵(으), 左(자), 囉(레), 注(주), 囉(레), 准(준), 提(제), 娑(사바), 訶(하) 朱書准提呪二件一件布字輪書而入於喉鈴筒之內一件黃絹幅子畢裏後先以此呪豎裏幅子也呪紙大小稱幅子體一周回許裁之可也 文殊菩薩去印能消定業呪 唵(으), 娑(바), 計(계), 陀(타), 那(나), 麼(마) 沙縛(사바), 訶(하) 陀羅尼集第六卷云畢藏後此呪印封能消定業也黃絹幅子畢裏其緘縫面書證明謨謹封呪紙廣狹長頭稱幅子之體一周回許裁之慎勿過不及之弄誕”

표 2 조선후기 불화의 원통형 후령통의 출토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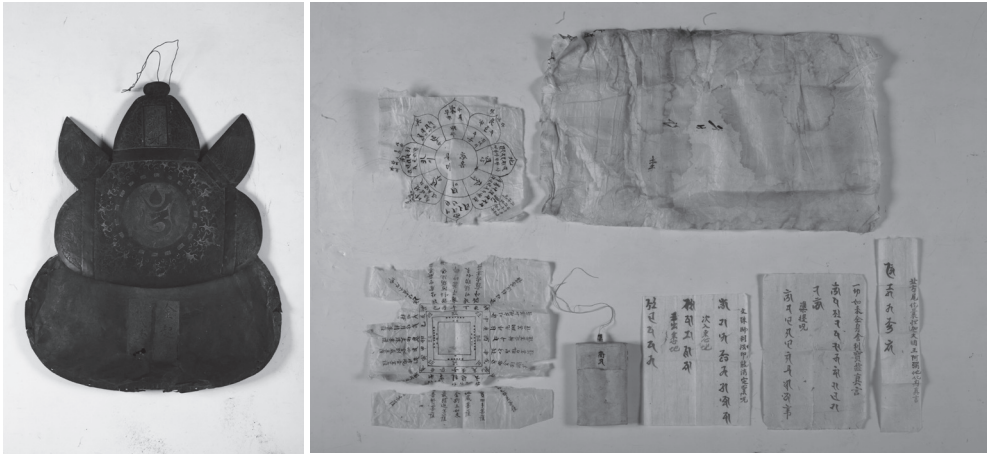
불화명 및 연대		복장물		
		복장낭	후령통	황초폭자
<p>법화사 영산회상도 1724년</p>				
<p>구룡사 감로도 1727년</p>				
<p>선암사 영산회괘불도 1753년</p>				
<p>선암사 제석천도 1753년</p>				
<p>문수사 지장시왕도 1774년</p>				

<p>통도사 현왕도 1775년</p>				
<p>직지사 괘불도 1800년</p>				

한 경우도 있으나 주로 긴 원통형에 종이로 만들어졌다. 불화 후령통의 재질로 종이 선호되었던 것은 상단에 걸리는 복장낭과 뒷면에 납입하면서 생겨나는 무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화에서 출토된 원통형 후령통에서 주목되는 변화는 덮개의 형태이다.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불화 후령통은 18세기 전반까지 후혈이 없는 덮개가 사용되다 점차 후혈이 발달된 덮개를 사용하는 방향을 발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룡사 감로도>(1727)와 <선암사 제석천도>(1753)에서는 구멍이 없는 팔엽 덮개가 사용되었으나 <선암사 영산회괘불도>(1753)와 <문수사 지장시왕도>(1774)에서는 일명 喉穴이라 부르는 긴 관의 구멍이 덮개가 사용되었다(표 2 참고).³¹ 후혈은 1679년에 간행된 능가사판 『조상경』에 처음 등장하였다. 불상의 경우 조선 전기에 후령통에 후혈이 있는 경우와 없는 덮개가 혼재되었다가 조선후기인 17세기부터 긴 관의 후혈이 발달된 후령통이 일반화되었다.

³¹ 능가사판 『조상경』(1677) 「腹藏喉鈴八葉筒銀盒所入諸物次第抄錄」, “...다음으로 오보병을 납입한다. 오색사는 은합 내의 덮개에서 각각 뽑아내는데, 오보병 입구의 양면원경 사방을 합하여 하나가 되며 길이가 십척 혹은 오십척이다. 팔엽덮개의 구멍을 뚫어 통하게 한 뒤 후령팔엽통을 덮으며, 오색사로 사방경을 통 막 사방에 매달고 거둬서 팔엽통을 등글게 감는다... (次以五瓶所納 五色絲各牽出銀合內蓋 五瓶口兩面圓鏡之四邊兩面圓鏡銀合內入量蓋五瓶口者 合爲一條 長十尺或五十尺 透穿八葉蓋穴然後 蓋之喉鈴八葉筒 以其五色絲四方鏡筒外四方懸之仍爲結環八葉筒也.)” 팔엽덮개에 구멍을 뚫는다는 내용으로 보아 후혈이 생겨나고 그 기능이 정착되는 시기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중엽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혈이 있는 후령통 사례로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에서 출토된 은제후령통(1490)과 법주사 소조삼세불좌상(1626)에서 출토된 후령통이 있다. 이 후령통은 능가사판 『조상경』의 내용대로 원형의 몸체에 구멍이 있는 덮개가 덮여 있으며 밖에는 오방경이 오색실에 감겨 있었다. 불상의 후령통 변화에 대해서는 이용윤, 『불상 봉안의식의 精髓, 腹藏』, 『불복장의식 현황조사보고서』(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pp. 16-2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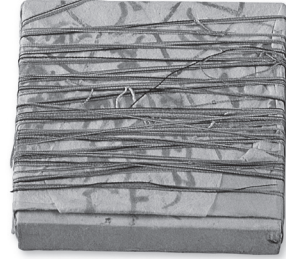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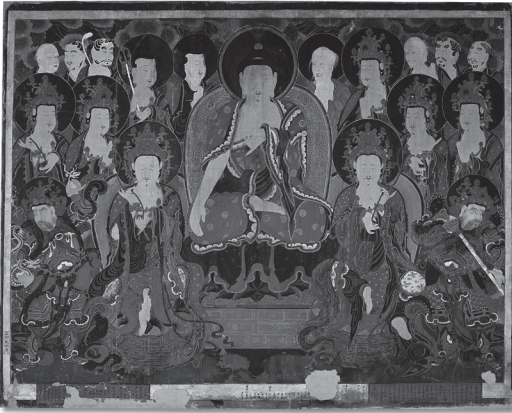
도 13 <지장사 청동 복장낭>의 복장, 1722년, 청동·종이, 청동복장낭 58.5×47.7cm(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원통형 후령통은 주로 복장낭에서 출토된다. 복장낭은 불상의 내부 공간만큼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기에 고려시대부터 유지되었던盒 형태의 원통형 후령통을 그대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형태만이 아니라 후령통에 안립되는 물목에서도 불상 후령통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선암사 제석천도>(1753)의 복장낭에 안립된 원통형 후령통을 살펴보면, 안에 오보병을 비롯한 오륜종자, 진심종자, 양면원경, 오색사, 전신보협다라니가 들어 있고 밖에 오방경을 적거나 붙어 있다. 그리고 후령통 밑에 원문으로 두고 사방주가 적힌 황초폭자로 감싼다.³² 이처럼 불화 후령통은 재질이 종이인 점을 제외하고 불상과 동일한 형태에 같은 물목과 진언이 사용되었다.

불상과 불화에 구별 없이 사용하던 원통형 후령통은 19세기에 이르러 불상은 원통형, 불화에는 방통형으로 형태가 규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족자에서 액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으며 일정 기간 장항형식과 후령통 형태가 서로 혼재하는 양상을 거치면서 정형화되었다. 18세기 후반 장항 형식과 후령통의 혼재 양상을 보여주는 예로 <문수사 지장시왕도>(1774)와 <통도사 현왕도>(1775)을 꼽을 수 있다(표1, 표2 참고). 이 두 불화는 액자로 장항되어 있으며 원통형 후령통을 복장낭에 납입하지 않고 화면 뒷면에 안치하였다.³³ 이보다 앞서 <지장사 청동복장낭>(1722)에서도 방통형 후령통이 출토되었다. 복장낭을 걸었던 괘불도는 현재 전하지 않지만 대형 불화의

³² 18세기 불화 복장의 후령통과 황초폭자에 안립되는 물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다.

³³ <통도사 현왕도>는 새로 유리액자로 장항된 상태이지만 그 안에는 제작당시의 원 장항 상태인 액자가 그대로 들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 14 <용문사 극락전 영산회상도>와 복장, 1812년, 화면 139×188cm, 복장 7.7×7.4cm (용문사 제공)

특성상 족자로 장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장낭에서 출토된 후령통은 납작한 사각형태로 덮개는 후철이 발달되어 있으며 각 면마다 東·南·西·北의 묵서와 사방주 진언이 적혀 있다. 후령통 외부 물목으로 황초폭자와 列金剛地方之圖, 八葉大紅蓮之圖 및 주서로 적은 법인주와 준제주 등을 적은 진언이 나왔다(도 11).³⁴ <지장사 청동복장낭>에서 발견되는 방통형 후령통과 물목은 18세기 후반에 조선된 불화 복장물목과 유사하여 이같은 변화가 18세기 전반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⁵

액자로 장황된 불화에 방통형 후령통을 안립하는 방식은 <통도사 신중도>(1792)를 시작하여 <관음사 현왕도>(1811), <용문사 영산회상도>(1812), <통도사 지장시왕도>(1812), <파계사 신중도>(1824) 등 19세기 전반에 보편화되었다(도 14, 표 1 참고). 화면 뒷면에 후령통을 안치하면서 족자형 불화에서 부처의 정수리 위에 자리했던 후령통은 『조상경』에서 명시하는 배의 배꼽이라는 후령통 본래의 봉안 위치를 회복하게 되었다. 복장 안립 공간이 지닌 상징성이 살아나면서 후령통을 화면 뒷면에 안치하는 방식은 더욱 선호되었을 것이며 후령통은 뒷면 공간에 납입하기 적합한 납작한 사각형 즉 방통형으로 변화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불화 복장에서 후령통은 19세기를 전후로 새로운 형태로 변모해 나갔다. 그 변화에는 후령통의 안립 공간이 복장낭에서 화면 뒷면으로 이동하는 것과 족자에서 액자로 불화의 장

³⁴ 후령통 제작 당시 사방주에 오기가 있었는지 北과 진언 위에 南과 진언을 적은 종이를 덧붙였다. <지장사 청동복장낭>은 2001년 성보문화재연구원의 조사로 발견되어 발원문 중심으로 소개되었다. 이종수, 위의 논문, pp. 133-142 참고; 발원문을 포함한 복장물목에 대해서는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 II』(불교문화재연구소, 2007), p. 418 참고.

³⁵ <지장사 청동복장낭>은 발원문을 제외하고 후령통 형태와 물목 및 진언만으로 본다면 19세기에 복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후령통은 후대에 납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이 변하는 것과 연동되어 맞물려 있다. 장황의 변화에 따른 복장의 안립 공간의 이동과 방통형 후령통의 등장은 이후 불상과 구별되는 불화만의 독자적인 후령통 형식을 만들어내었고 이는 1824년에 간행된 유점사판『조상경』에 불화 후령통을 方筒의 기록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V. 후령통의 安立物目과 절차

18세기 후반 후령통의 형태가 변하는 것과 함께 후령통의 안과 밖을 구성하는 안립물목과 이에 대한 절차도 점진적으로 바뀌었다. 후령통의 형태가 변하는 원인과 다르게 물목의 변화는 구조적인 영향보다는 불교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변화 요인은 명확하지 않다.

현행 복장의식을 살펴보면 의식의 대부분은 후령통에 들어가는 물목을 제작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조상경』 또한 물목의 의미와 절차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조상경』을 판본별로 비교해 보면, 용천사판을 시작으로 16세기에서 18세기에 간행된 『조상경』은 후령통에 물목을 납입하는 순서에 큰 변화가 없이 지속되다가 1824년에 간행된 유점사판에서는 물목이 추가되고 안립 절차도 복잡해졌다.³⁶

16세기에서 18세기 간행된 『조상경』 중 능가사판(1679)을 기준으로 『筒內藏次第』를 보면, 후령통 안에 오륜종자·진심종자·五色裹帛을 넣고 사리통, 심주, 오색사, 원경을 덮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후령통 덮개에는 다시 오륜종자와 진심종자를 적고 통 밖에는 사방진언을 쓰고 통 아래에 보협다라니와 원문을 둔 후 황초폭자로 묶어 근봉한다. 그리고 법인주로 봉인한다(표 3).³⁷

〈선암사 제석천도〉(1754) 후령통의 경우 내부에는 오륜종자 진언, 오보병, 원경, 오색사가 들어 있고 후령통 외부에 사방주 진언이 적혀 있으며 사방주가 적힌 황초폭자로 후령통을 감싸고

³⁶ 『조상경』의 판본에 따른 체제 비교는 태경, 『조상경-불복장의 절차와 그 속에 담긴 사상』(운주사, 2006), p.30에 수록된 조상경 판본별 항목비교표 참고; 조선시대에 간행된 『조상경』 판본은 용천사판과 화장사판, 능가사판과 김룡사판, 그리고 유점사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능가사판과 김룡사판은 용천사판을 후대에 번각한 것이며, 유점사판은 용천사판을 유지하면서 전면 개편한 것이다. 『조상경』의 판본과 필사본의 계통에 관한 연구로 남권희, 『造像經』板本の書誌的研究,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불교문화재연구소, 2014), pp. 142-194 참고.

³⁷ 능가사판 『조상경』, 『筒內藏次第』, “先安五輪種子 次安真心種子 次安五色裹帛 舍利筒 心珠 五色絲圓鏡蓋之五鏡次第方三角圓半月圓五鏡…五輪種子 真心種子筒蓋書 次筒外書四方眞言…又寶齒眞言願文銀筒外低黃網幅子稱臣封裏備具諸物置於枕上以不動尊眞言 加持一百八遍 然後入佛腹內成滿閉之…文殊師利法印能消業呢”

표 3 용천사판, 능가사판, 화장사판, 김룡사판『조상경』후령통 안립 순서



筒內藏次第	
후령통 안	후령통 밖
五輪種子→眞心種子→五色裹帛(덮는다) 舍利筒·心珠·五色絲·圓鏡	眞心種子筒蓋書 次筒外書四方眞言 畢藏後次呪法印封能消定業也 文殊舍利法印能消定業呪음바게타바나마바하

표 4 <선암사 신중도>(1753년)의 복장 후령통 안립 순서

후령통	황초폭자 해체	후령통 해체	복장 물품
			

※ 사진 제공 이선용

표 5 능가사판『조상경』(1679년)의 후령은합팔엽통개지도와 <선암사 영산회괘불도> 후령통

후령은합팔엽통개지도	선암사 영산회괘불도, 1754년
	

법인주로 봉인한 상태로 발견되었다(표 4). <선암사 제석천도>와 함께 조성된 <선암사 영산회괘불도>(1754)는 이와 다르게 후령통 덮개에 후혈이 발달되어 있고 덮개 가장자리는 팔엽으로 처리되어 있다. 팔엽의 덮개 형태는 능가사판『조상경』의 喉鈴銀合八葉筒蓋之圖(이하 팔엽개지도)를 재현한 것으로 후령통의 팔엽 덮개와 각 앞에는 팔엽개지도에 표기된 진언이 그대로 적혀있다(표 5). 이처럼 1754년에 조성된 선암사 불화의 후령통은 형태와 물품, 진언에 용천사판에서 능가사판에 이르는 『조상경』의 법식이 반영되어 있다.

원통형 후령통에서 보이는 물품의 안립 절차는 방통형 후령통이 사용되면서 변화하였다.

원통형 후령통에 맞게 황색을 중심으로 동글게 배치되었던 오보병의 배치는 방통형 후령통에서는 황색을 중심으로 동방 청색, 남방 주색, 북방 흑색, 서방 백색이 배열되었다. 오보병의 배치만이 아니라 물목과 진언에도 여러 변화가 일어났다. 후령통을 감싸는 물목인 列金剛地方之圖(이하 지방지도), 八葉大紅蓮之圖(이하 팔엽홍련지도), 准提九字天圓之圖(이하 준제천원지도)가 등장하였고 후령통을 봉인하는 진언으로 법인주 외에 준제주가 추가되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후령통에서 일어나는 물목과 체제의 변화는 1824년에 간행된 유점사판『조상경』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유점사판에서는 앞서 간행된 『조상경』에서 한꺼번에 서술했던 후령통안립차제를 후령통내 안립차제와 황초폭자내 안립차제로 나누었다. 후령통 안의 납입 순서를 보면 오묘종자-보신주·화신주·진심종자-준제주-양면원경-오보병-사리함-무공심주를 순서대로 놓고 양면원경으로 오보병 입구를 덮는다. 후령통 밑에는 중방원경을 놓고 이어 지방지도를 후령통을 감싸고 위에는 팔엽홍련지도, 준제천원지도를 놓는다. 후령통에서 나온 오색사는 팔엽홍련지도와 준제천원지도를 꿰뚫어 연결하고 하늘이 땅을 감싸듯 준제천원지도를 지방지도를 감싼다. 다음으로 황초폭자 안립순서를 보면 지방지도와 준제천원지도를 후령통을 놓고 그 아래 원문과 보협다라니를 놓은 후 황초폭자로 감싼다. 후령통에서 나온 오색사로 가로, 세로로 묶고 준제주를 세로로 봉하고 법인주를 가로로 봉한다. 마지막으로 南面에는 證明人을 적는다(표 6).³⁸

표 6 유점사판『조상경』 후령통 안립 순서

喉鈴筒內 安立次第	
후령통 안	후령통 밖
五輪種子→報身呪·化身呪·眞心種子·准提呪→舍利函(舍利七粒)·無孔心珠一介→下面圓鏡→圓鏡上安五寶瓶→上面圓鏡覆五瓶口→五色線(五寶瓶合之 拔出於筒蓋)	地方抱裹於筒→八葉蓮仰敷筒上→天圓下覆→五色線貫出蓮花天圓之上→天圓抱裹地方之外→黃綃幅子畢封
黃綃幅子內 安立次第	
願文→寶篋呪→天圓地方於裹喉鈴筒→黃綃幅子包裹→幅子頭及五色線合而回之曲着於背後以五色線半回豎裹半回橫裹→准提呪豎封→法印呪橫封→南面書訂明稱臣謹封	

³⁸ 유점사판『조상경』, 「喉鈴筒內安立次第」, “先安五輪種子 次安報身呪 化身呪 眞心種子 准提呪 次安舍利函具蓋 舍利七粒 無孔心珠函具蓋 心珠一介 次安下面圓鏡 圓鏡上安五寶瓶 次以上面圓鏡 覆五瓶口 以其繫瓶口五色線合之 拔出於筒蓋 喉鈴筒然後筒蓋閉之 次以地方抱裹於筒 次以八葉蓮仰敷筒上 次以天圓下覆 而以五色線 貫出蓮花天圓之上 以天圓抱裹地方之外 令天抱地外 然後以黃綃幅子畢封也”; 「黃綃幅子內安立次第」, “黃綃幅子內 先安願文 次安寶篋呪 次安天圓地方於裹喉鈴筒 以黃綃幅子包裹 并以幅子頭及五色線合 而回之曲着於背後 以五色線 半回豎裹 半回橫裹 線盡然後 以准提呪豎封 以法印呪橫封 於南面書訂明 稱臣謹封 後奉安於壇上 誦呪法師 念不動尊眞言 加持一百八遍”

표 7 조선후기 불화의 방통형 후령통 출토 사례

	통도사 신중도, 1792년	통도사 지장시왕도, 1812년	관음사 현왕도, 1811년	파계사 신중도, 1824년	통도사 백련암 영산회상도, 1863년
불화					
복장물					

〈관음사 현왕도〉(1811), 〈용문사 영산회상도〉(1812), 〈파계사 신중도〉(1824)에서는 후령통 외부를 지방지도, 팔엽홍련지도, 준제천원지도 등으로 감싸고 오색사로 마무리한 모습이 확인되며, 〈보광사 현왕도〉(1836)와 〈봉은사 비로자나불회도〉(1886)에서는 후령통 밑에 지방지도가 있고 후령통에서 나온 오색사가 팔엽홍련지도, 준제천원지도를 관통하고 있다. 이 물목과 체제는 유점사판과 내용이 일치한다(표 7, 도 15). 이 밖에 후령통을 감싼 황초폭자를 준제주와 법인주로 봉하는 방식은 〈통도사 신중도〉(1792), 〈통도사 지장시왕도〉(1812), 〈통도사 백련암 영산회상도〉(1863), 〈봉은사 비로자나불회도〉(1886) 등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제작된 방통형 후령통에서 적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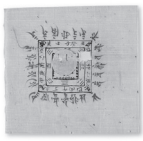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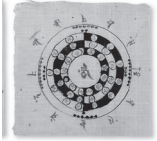



도 15 〈보광사 현왕도〉와 출토 복장, 1836년, 비단·종이, 화면 123.4×100.5cm 후령통 5.4×6.6cm 팔엽대홍련지도 지름 14.2cm, 준제구자천원지도 지름 11.4cm (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보광사 현왕도〉(1836)와 〈봉은사 비로자나불회도〉(1886) 등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제작된 방통형 후령통에서 적용되었다. 〈통도사 지장시왕도〉인 경우 『조상경』의 내용 그대로 가로로 두른 법인주에 “證明比丘 信瓊謹封”가 적혀 있기도 하다. 이처럼 19세기 불화 복장은 황초폭자 외부에 준제주와 법인주로 봉인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후령통에 안립된 물목과 안립절차가 유점사판 『조상경』과 일치한다.

18세기 족자형 불화에서 출토되

는 원통형 후령통은 16세기부터 18세기에는 간행된 『조상경』의 물목과 안립 체제를 따르고 있으며 때때로 능가사관 『조상경』의 팔엽개지도가 적용되기도 하였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액자형 불화가 등장하고 방통형 후령통이 유행하면서 외부를 감싸는 열금강지도, 팔엽홍련지도, 준제천원지도 등은 후령통을 구성하는 물목으로 유점사관 『조상경』에 반영되었다. 18세기 말-19세기 초 후령통 외부 물목의 등장과 체제와 관련해 주목되는 의식집이 1784년에 김천 쌍계사 수도암에서 간행된 『秘密開刊集』이다.

표 8 의식집의 후령통 외부물목과 불화 후령통 외부물목

목록	후령통 외부 물목		
	지방지도	팔엽홍련지도	준제천원지도
비밀개간집 1784년			
문수사 지장시왕도 1744년			
관음사 현왕도 1811년			
용문사 극락전 영산회상도 1812년			
조상경 유점사관 1824년			

『비밀개간집』에는 불교의식에서 행하는 다양한 진언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복장의 식과 관련된 지방지도, 팔엽홍련지도, 준제천원지도 등이 실려 있다. 『비밀개간집』(1784)과 유점사판 『조상경』(1824)을 비교해보면, 팔엽홍련지도는 거의 유사하지만 『비밀개간집』의 준제천원지도는 내부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지도는 불보살의 존명과 배치가 유점사판과 다르다. 『비밀개간집』이 간행되던 시기를 전후로 제작된 불화 가운데 <문수사 지장시왕도>(1774)를 비롯해 <관음사 현왕도>(1811), <용문사 극락암 영산회상도>(1812)에서는 『비밀개간집』에 수록된 지방지도, 팔엽홍련지도, 준제천원지도와 비슷한 물목이 출토되었다(표 8, 표 2 참고).

<문수사 지장시왕도> 후령통은 능가사판에 근거해 원통형에 후혈이 발달된 팔엽 덮개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외부 물목으로 『비밀개간집』에 실린 지방지도와 준제천원지도가 사용되었다. <문수사 지장시왕도>의 후령통에서 보이는 新舊 복장 형식의 공존은 후령통의 형태만이 아니라 물목과 체제도 순차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표1, 표2, 표8 참고). 즉 지방지도와 준제천원지도가 발생하였지만 팔엽홍련지도는 아직 생겨나지 않았으며, 팔엽홍련지도와 유사한 형태와 기능이 후령통의 팔엽덮개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추후 덮개에서 팔엽이 분화되어 팔엽홍련지도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은 후령통 외부물목이 지방지도-팔엽홍련지도-준제구자지도 순으로 배치되고 오보병에서 나온 오색사가 덮개의 후혈을 뚫고 나와 팔엽홍련지도로 바로 연결된다는 점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처럼 18세기 후반에 불화 후령통의 외부 물목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지방지도, 준제천원지도, 팔엽홍련지도는 1784년에 간행되는 『비밀개간집』에 새로운 복장 물목으로 수록되었으며 19세기에 들어서는 후령통의 필수 물목으로 정착하여 유점사판 『조상경』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VI. 맺음말

조선후기 불화에서 복장의 안립 공간과 후령통 형태 및 진언, 그리고 물목과 절차의 변화를 실제 불화에서 출토된 복장과 의식집을 연결해 살펴보았다.

불화는 상 내부에 복장을 납입하는 불상과 다르게 복장의 납입 공간에 제약이 따른다. 불화가 가진 안립 공간의 한계는 오히려 복장을 충전하기 위해 납입되는 다리니, 경전, 식물 등이 생략되고 실질적인 복장인 후령통에 집중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불화 복장만의 특징을 형성하였다.

불화 후령통은 불상의 원통형 후령통과 대비되어 방통형 후령통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불화의 후령통 역시 18세기 후반까지 원통형 후령통이 사용되다 방통형으로 변모한 것이다. 후령통의 형태 변화와 관련된 외부적인 요인은 불화의 상황이다. 조선 후기 불화의 상황은 18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족자에서 액자로 전환되었다. 불화가 족자로 상황될 경우 후령통은 복장낭에 납입되지만 액자일 경우 화면 뒷면에 안립되었다.

후령통이 화면 앞면에서 뒷면으로 이동하면서 화면 외곽이나 존상의 신체에 표기되었던 진언도 뒷면으로 이동하였다. 불화 뒷면의 진언은 후령통 안립 위치에 원형으로 준제구자를 포치하거나 네 곳에 사방주를 적거나 봉인을 뜻하는 법인주를 표기하는 등 일정한 법식을 갖추며 발전하였고 19세기 말에는 준제구자 대신 전신보협다라니가 선호되고 봉인주로 준제구가 추가되는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후령통의 안립 공간이 바뀌면서 후령통도 공간에 적합하게 형태가 변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복장낭에 납입되었던 원통형 후령통은 화면 뒷면으로 안립 공간이 바뀌면서 나무틀로 만들어진 공간에 적합하게 방통형 후령통을 변모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후령통의 형태가 변하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는 후령통 안과 밖에 들어가는 물목이 달라지고 이에 따른 절차도 변하였다. 후령통 내부에 들어가는 물목은 세분화되었고 외부 물목은 덮개에서 팔엽이 분화되어 팔엽홍련지도가 생겨나고 지방지도와 준제구자천원지도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후령통의 형태와 물목 및 절차 변화는 조선 후기에 간행된 『비밀개간집』과 유점사판 『조상경』에 반영되어 기록으로 전하고 있다.

*주제어(key words)_복장(腹藏, bokjang), 후령통(喉鈴筒, huryeongtong), 진언(眞言, dharani), 조상경(造像經, Josang gyeong), 비밀개간집(秘密開刊集, Bimil gaegan jip), 장황(粧纒, mounting)

■ 투고일 2015년 11월 30일 | 심사개시일 2015년 12월 8일 | 심사완료일 2016년 1월 19일 ■

참고문헌

사료 및 보고서

- 『造像經』, 용천사판, 1575.
『造像經』, 능가사판, 1697.
『造像經』, 화장사판, 1720.
『造像經』, 김룡사판, 1746.
『造像經』, 유점사판, 1824.
『造像經』 필사본, 해인사 소장본, 19세기.
『祕密開刊集』, 쌍계사 수도암판, 1784.
수덕사성보박물관 편, 『至心歸命禮-韓國의 佛腹藏 特別展』, 수덕사성보박물관, 2004.
불교문화재연구소 편, 『한국의 사찰문화재』,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2-2013.
_____, 『불복장의식 현황조사보고서』, 대한불교조계종 문화부, 2012.
_____,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 2014.
온양민속박물관 편, 『1302년 阿彌陀腹藏物의 照査研究』, 온양민속박물관, 1991.
고경스님 교강, 송천·이종수·허상호·김정민, 『韓國의 佛畫 畫記集』, 성보문화재연구원, 2011.
周嘉崑 著·안영길 역, 『裝潢志』, 낙원표구사, 1994.
泰甯 역자, 『조상경-불복장의 절차와 그속에 담긴 사상』, 운주사, 2006.
_____, 『佛腹藏에 새겨진 의미』, 양사재, 2008.

논고

- 남권희, 『造像經』板本の 書誌的 研究,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불교문화재연구소, 2014, pp. 142-194.
박은경, 「고려불화의 변죽-本地, 畫幅 그리고 奉安에 대한 試論-」, 『미술사논단』34, 2012, pp. 35-65.
안주호, 「불복장(佛腹藏) 문헌 자료의 표기 양상 연구」,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2005, pp. 29-52.
이진희, 「조선시대 장황 용어와 관련 기록」, 『장서각』23, 2010, pp. 117-149.
이영숙, 「仙巖寺 掛佛과 腹藏囊에 관한 考察」, 『문화사학』21, 2004, pp. 875-901.
이종수, 「靑銅腹藏囊의 新例-發願文 내용을 중심으로」, 『미술자료』69, 2003, pp. 133-142.

- 이선용, 「불화에 기록된 범자와 진언에 관한 고찰」, 『美術史學研究』278, 2013, pp. 125-162.
- _____, 「佛腹藏物 구성형식에 관한 연구」, 『美術史學研究』261, 2009, pp. 77-104.
- 이승혜, 「불상의 성물(聖物) 봉안: 쟁점과 과제」, 『정신문화연구』3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pp. 31-62.
- _____, 「고려시대 불복장의 형성과 의미」, 『美術史學研究』285, 2005, pp. 71-100.
- 이용윤, 「불상 봉안의식의精髓, 腹藏」, 『불복장의식 현황조사보고서』, 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pp. 16-29.
- 정명희, 「봉안 공간과 의례의 관점에서 본 조선시대 현왕도 연구-국립중앙박물관 소장 〈成佛寺 現王圖〉를 중심으로」, 『미술자료』78, 2009, pp. 95-126.
- 정은우, 「고려시대 불복장의 특징과 형성배경」, 『美術史學研究』286, 2015, pp. 31-58.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 불화에서 출토된 복장을 중심으로 복장의 안립공간과 후령통 형태 및 진언의 관계성, 원통형 후령통과 방통형 후령통의 형태에 따른 복장 납입 물목과 절차 등을 『조상경』 및 복장 관련 의식집에 근거해 그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불화 복장의 특징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후령통의 안립 공간에 주목하였다. 불화는 후령통을 비롯해 경전, 다라니, 직물 등이 다량을 납입되는 불상과 다르게 복장을 안립하기에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 제한은 후령통을 비롯해 경전과 다라니, 직물 등이 다량으로 납입되는 불상과 다르게 복장의 원 기능인 후령통에 집중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결국 불화 복장만의 특징을 형성하였다.

후령통의 안립 공간과 불화 장황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17-18세기에 불화는 족자로 장황되다가 18세기 후반부터 액자가 선호되었다. 족자에서 액자로의 변화는 복장 안립 공간의 변화를 유도하였고 그 결과 화면 상단 복장낭에 납입되던 후령통은 화면 뒷면으로 이동하였다. 안립 공간의 변화는 후령통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복장낭에서는 불상과 같은 원통형의 후령통을 사용하였으나 화면 뒷면으로 공간이 바뀌면서 이에 맞게 납작한 방통형으로 변모하였다. 18세기 말부터 방통형 후령통이 불화의 후령통으로 확산되었고 이는 1824년에 유점사에서 간행된 『조상경』(1824)에 “불상의 후령통은 圓筒, 불화의 후령통은 方筒”이란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후령통의 형태 변화와 맞물려 후령통 안과 밖에 들어가는 물목과 이를 수행하는 절차도 점차 변하였다. <문수사 지장시왕도>(1774)에는 18세기 후반에 불화에 일어난 다양한 변화가 함축되어 있다. 이 불화는 액자로 장황되어 있으면서 화면 뒷면에 원통형 후령통이 납입되어 있다. 후령통의 팔엽덮개는 전시대에 간행된 능가사판 『조상경』(1679)을 따른 것이며 새롭게 추가된 후령통 외부 물목인 열금강지도와 준제구자천원지도는 『비밀개간집』(1784)에 영향을 미쳤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방통형 후령통의 사용이 정착되고 팔엽덮개에서 팔엽대홍런지도로 발전하여 열금강지도와 준제구자천원지도와 짝을 이루며 체계화되었다. 그 변화의 산물은 유점사판 『조상경』(1824)에 수록되어 오늘날까지 복장법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A Study of *bokjang* in Buddhist Paintings of the Late Joseon Period

Lee Yong-yun *

This study examines sacred objects(腹藏, *bokjang*) installed in Buddhist paintings of the late Joseon period and illuminates changes in the spaces for enshrinement, forms of *huryeongtong*(喉鈴筒), relations with *dharani*, and differences in the contents and process of enshrining objects between cylindrical and square *huryeongtongs*, based on *Josang gyeong*(造像經, a Buddhist scripture compiled in Joseon describing procedures for the creation and preparation of Buddhist statues) and other related ritual manual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bokjang* in Buddhist paintings, this paper focuses on the spaces, into which *huryeongtong* was placed. Unlike Buddhist statues where a large quantity of scriptures, *dharani*, and textiles as well as *huryeongtong* was enshrined, Buddhist paintings offer a limited space. As a result, emphasis was placed more on *huryeongtong* itself, the fundamental element of *bokjang* practice. It in the end formed the characteristics of *bokjang* practice of Buddhist paintings.

The mounting of Buddhist paintings is connected to the spaces for enshrinement. Buddhist paintings produced during the 17th and 18th centuries had mostly been mounted on hanging scrolls, whereas those produced from the late 18th century on were mounted

*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in frames. It led to a change in the spaces for enshrining sacred items. *Huryeongtong* was no longer enshrined in the pouch which was hung at the top of the painting; it came to be inserted to the back of the painting. Such a change also affected the form of *huryeongtong*. Instead of the cylindrical one which was used in Buddhist statues and pouches for Buddhist paintings mounted in hanging scroll format, *huryeongtong* of flat and square form was invented and used for paintings of the new format. As the latter came to be the standard for Buddhist paintings from the late 18th century, a passage that reads “*Huryeongtong* used in statues are round; those used in paintings are square” appeared in the new edition of *Josang gyeong*, which was published at Yujeonsa Temple in 1824.

Along with the change in the form *huryeongtong*, the items and procedures for enshrinement also gradually changed. The painting of the *Bodhisattva Kstigarbha and Ten Kings*(1774) at Munsusa Temple indicates various changes that occurred in Buddhist painting of the late 18th century. This painting is mounted in frame format, but has a cylindrical *huryeongtong* attached to its reverse side.

The eight petal-patterned lid of *huryeongtong* is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 of *Josang gyeong* published at Neung’gasa Temple in 1679, while the new additions outside *huryeongtong* such as *lie jingang difang zhi tu*(列金剛地方之圖) and *chunti jiuzi tianyuan zhi tu*(准提九字天圓之圖) influenced the content of the *Bimil gaegan jip*(秘密開刊集, 1784). From the late 18th to the early 19th centuries, the use of square *huryeongtong* became prevalent and *huryeongtong* with eight petal-patterned lid developed into a *baye da honglian zhi tu*(八葉大紅蓮之圖). It finally came to be a pair with *lie jingang difang zhi tu* and *chunti jiuzi tianyuan zhi tu*. Such changes are included in the Yujeonsa edition of *Josang gyeong* and remain as the standard procedure for *bokjang* practice today.